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전인교육

이덕주*

교육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얻고자 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식 교육이든, 기술교육이든, 윤리교육이든 모두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다는 우리 국민들의 세계 행복지수는 2017년도 총 155개국 중 56위입니다. 이 행복지수는 유엔지속가능개발연대 세계행복도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심리적 행복지수보다는 물리적 행복지수입니다. 그런데 삶의 질을 비교한 OECD 행복지수는 2017년도 OECD 32개국에서 31위로 나타났고, 2016년도 유니세프가 조사한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서 한국은 72개국 중 71위, 학업 스트레스는 30개국 중 1위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쉽게 방향을 돌리지 못했던 것은 지난 세기 물질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이 너무나 굳건했고, 그에 따르지 않을 때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 전인교육학회 회장

은 이미 변했고, 또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 중의 하나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금세 교체되어 쓸모없어질 지식과 기술을 오랜 시간을 들여 배우고 익힐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미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닌 지혜이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와 창의력,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존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지만 지금까지의 교육방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눈앞의 물질적 성과에 급급해 알면서 미루고 외면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급박한 현실 앞에 와 있습니다. 변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사회에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변화에는 먼저 실천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전인교육학회는 교육의 변화를 위해 먼저 실천해 온 사람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전인교육에 뜻을 함께 하는 학자와 교수, 전문가,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모여 설립한 이후 10여 년 동안 진정한 전인교육의 연구와 실천을 위해 묵묵히 꾸준하게 걸어왔습니다.

참된 전인교육이란 아이들이 인생이라는 멋진 건축물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어갈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흔히 전인교육의 요소라고 알려져 있는 ‘지덕체智德體’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근본의 교육입니다. 자신의 근본(본성)을 앎으로써 타인에 대해서 알고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학문과 기술의 근본이며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명상을 통해서 본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빼

기 명상은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여 잘못 형성된 마음을 빼기함으로써 인간의 고귀한 본성을 되찾도록 합니다. 본성을 회복한 아이들은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알게 되기에,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큰마음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과 성공보다는 이웃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전체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주변과 세상에 감사할 줄 아는 크고 낮은 마음이 되어 저절로 새로운 시대의 화두인 소통과 협력, 공존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불안, 걱정, 열등감, 비교 등 불필요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행복하며 더 나아가 주변에 행복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인교육학회는 지속적으로 마음빼기 명상의 이러한 인성교육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고 검증해왔습니다. 또한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 대상의 발달과정에 맞는 명상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보완,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모아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회지를 발간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 인성교육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인교육학회의 활동과 성과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작년 ‘자유학기제와 행복 교육: 명상을 통한 꿈과 희망’을 주제로 개최한 2016 추계 학술대회에는 200명 이상의 교육 관계자 및 일반인들이 참석해 교육현장의 변화를 실감나게 했습니다.

물질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아닌, 다 함께 행복하기 위한 공존의 능력, 나 혼자 성공이 아닌 이웃과 전체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참된 전인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토대 위에 지식교육과 과학기술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앞

으로의 우리 사회는 더없이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인재들이 성공도 하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해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교사나 학자, 교육 행정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인교육학회의 공식 학술지 ‘전인교육’이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전인교육에 대한 꼭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좀 더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논문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하고, 전문가의 컬럼도 실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사상이나 이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나를 넘어서 세상을 위하는 마음이 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의 마음을 ‘빼기’하는 명상교육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전인교육학회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학술지 ‘전인교육’이, 이러한 발걸음 위에 여러분의 더 많은 마음과 희망이 모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권두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017년 6월